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

- 금융의 혁신성장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도전 -

2019. 2. 15.(금) 11:10~11:20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캠퍼스마루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과 함께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의 향방이 주목되는 이 때,

* 세계 10대 금융도시 中 아시아 5곳 : 홍콩(3위), 싱가포르(4위), 상하이(5위),
도쿄(6위), 베이징(8위) (Z/Yen 그룹 발표, 2018.9월 기준)

생동감 있는 국제금융센터로 자리잡은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내일의 본격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거돈 부산시 시장님과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전재수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금융산업이 직면한 혁신의 필요성 및
한국 금융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동안 부산에서 추진되어 온
금융중심지 조성 노력과
앞으로의 도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경제환경의 변화와 혁신, 힘찬 발돋움

참석자 여러분,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경제 역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유럽 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 동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이렇게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산업도 다시 한 번 성장하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변화와 발전은
늘 도전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해왔습니다.

저희 금융당국은
금융이 우리 경제의 도전을 이겨내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금융혁신의 기본 방향과 틀을 갖추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금융이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산업이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금융분야의 혁명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와 월가를 융합하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었고,

영국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 역시
새로운 플레이어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한 이후
인터넷 기업들의 놀라운 성장소식이 연일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혁신적인 변화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금융혁신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고자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과 같은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의 발전 뿐 아니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 금융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전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창출해 내어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을
조속히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Ⅲ. 부산 금융중심지의 발자취와 평가

부산을 대표하는 금융인·경제인 여러분,

이곳 부산 문현지구는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1, 2단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거래소, 예탁결제원, 캠코 등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총 29개 금융회사들을 집적화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배출권거래소, 중앙청산소 유치를 통해
파생 및 新성장금융의 중심지로 확고한 위상을 세웠음은 물론,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출범('14.9.),
해양진흥공사('18.7.)의 설립 등으로
해양금융 특화지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16.9.)의 유치 및
IDB-IB 총회('15), AfDB 연차총회('18.5.) 등

유수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 동안 부산이 이루어낸 많은 일들은
10년 전에는 상상조차 힘들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신
부산시 관계자분들과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기관(Z/Yen Group)에서 평가한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GFIC)* 순위는 최근 3년간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 ('15) 24위 → ('18) 46위

실질적인 지역 내 금융산업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역 내 금융비중*은 오히려 후퇴하는 등

* 금융산업(GRDP) 비중(%) :

('11) 7.4 → ('12) 7.1 → ('13) 6.7 → ('14) 6.8 → ('15) 6.7 → ('16) 6.5

외형적·물적 인프라 대비 내실 있는 성장은
일구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V. 금융중심지 위상확보를 위한 도전과제

‘새가 오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먼저 심으라’는 말이 있듯이,

* 욕래조선수목(欲來鳥先樹木)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갖추고 있어야

확고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부산은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발표('18.9.12.)한 바 있습니다.

* 해양금융허브化 추진, 핀테크 등 금융기술기업 클러스터化, BIFC 입주 기관과 연계한 금융생태계 강화 등 6대 전략

국제적 물류 중심지라는 지리적 우위와

아시아의 핵심 자본거래시장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를

품고 있는 경제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산이 보다 매력적인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자질을 차근차근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육성은
결코 금융분야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금융중심지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세계, 교육 및 생활 여건에 이르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이
면밀하게 재검토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융혁신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어느 누구나 규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안전한 모래놀이터(Sandbox)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을 해소하고
혁신투자펀드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에는 대규모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하여
해외 금융당국과 국제기구,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핀테크 산업을 선보이는 한편,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핀테크 혁신 지원 뿐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혁신을 향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부산이 새로운 금융중심지 10년을 열어가는 데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산 지역에서 실제 성과로 실현된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V. 맺음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금융을 통해 각자 그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廣東)성의 작은 어촌도시, 선전(深圳, Shenzhen)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 생산규모와 견줄만한
고속 성장^{*}을 이루며 중국 개혁·개방의 메카로 떠오른 데에는

* GDP 기준 ('79년) 1억 9천만위안(약 326억원) →
('15년) 1조 75백만위안(약 300조원) 약 9,200배 성장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하이테크 부문의 틈새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곳 부산과 같이 바다에 인접한
중국 산둥성 동쪽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칭다오(Qingdao)는
해양 중심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루었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Hamburg)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내어
명성 있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갈 때,
부산이 확고한 금융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이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엔진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산의 차별화된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보여준 많은 성과를 보면
새로운 10년도
밝은 미래로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열 번째 생일을 맞이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드리며,

오늘 세미나에서의 열띤 토론과 진지한 고민이
부산이 차세대 금융중심지로 한 걸음 다가서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